‘정원문화산업의 길잡이’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개관

정원산업 수요 확대 및 정원산업 활성화 추진

순천시는 오는 6일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인근에 설립되었다.

정원지원센터 개관식은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순천 문화예술행사, 기념식, 현판 제막식, 시설 둘러보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원지원센터 앞 광장에서 8일까지 ‘꽃과 나무시장’이 열리고, ‘조경수 분재’가 전시되고 있다.

정원지원센터 주출입구와 실내 장식이 정원의 분위기가 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출로 센터를 방문객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구현되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상설전시장은 베란다정원, 사무실정원 등 6종류의 실내 모델정원이 조성되어 개관 이전부터 포토존으로 소문이 나 전국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특히, 1층에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정원디자인샵(용품점)은 김진홍 작가의 작품과 정원 관련 용품이 전시?판매되고 있고, 가든샵은 순천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의 생산화훼와 조경수 등을 판매하여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원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정원수자재 판매장, 정원수 공판장 등 정원산업 유통 핵심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정원 식물 및 용품의 유통과 판매, 품질인증과 모듈정원 제시, 기술개발 등 정원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정원관련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정원산업 컨설팅 및 꽃과 나무 상담소를 운영하고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를 통해 정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국가정원 도시로써 시민이 정원과 함께 행복을 만드는 도시”이며 “순천시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나아가 아시아생태문화 중심 순천의 정원산업의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정원지원센터는 사업비 70억(국비 35억, 도비 5억, 시비 3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98㎡로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26일에 준공되었다.

정원지원센터 개관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정원산업과(정원지원팀☎ 749-2943)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한정식 초대전’ 개최

한국 고유의 미와 정신세계를 ‘고요’ 작품으로 승화한 한국 추상사진의 선구자 한정식 초대전이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에서 열린다.

화순군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유명 사진작가 한정식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고요 한정식 초대전’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제 1·2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 온 추상사진의 대표작인 ‘고요’ 시리즈를 소개하고, 한국 추상 사진의 선구자 한정식(1937~)을 조명한다.

한정식의 대표작 ‘고요’ 시리즈는 대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진의 특성을 극복하고, 더 이상 대상의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대상에 접근해 기존 사물이 가진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낸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정원산업디자인전 내일 개막

8일 KBS열린음악회 개최

순천시는 오는 6일과 8일, ‘2018 대한민국 정원산업디자인전 개막식’과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6일 18시부터 동천갯벌공연장에서는 정원산업디자인전 개막행사로 순천만국가정원과 미래정원을 표현하는 드로잉 쇼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로봇이 진행하는 퍼포먼스, 축하공연으로 뮤지컬배우 차지연 외 11명이 펼치는 캣츠, 살다보면, 지킬앤하이드 등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진다.

8일에는 19시30분부터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정원산업디자인전을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는 양수경·부활·한동근·포레스텔라·우주소녀·유니티·유앤비·태진아·박현빈·강남·김영임·슬리피 등이 출연한다.

음악회 초대권은 지난 2일부터 순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당 1장까지 무료로 배포되며 당일 공연장 입장은 초대권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오후5시부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람객을 편의를 위해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도시숲과 실내정원 옆 잔디밭에서 관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는 국가정원운영과(061-749-2729)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국가정원운영과 최삼림 과장은 “많은 관람객과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교통 이용, 성숙된 공연관람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연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읍 청년회, 경로당 ‘출동! 깔끔이 기동대’ 운영

12월까지 73개소 경로당 대상 대청소·주변 환경 정비

광양시 광양읍 청년회가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 경로당 ‘출동! 깔끔이 기동대’ 운영에 나서고 있다.

광양읍 청년회는 지난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광양읍 모든 경로당 73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2회 방문해 실내와 주변에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과 화장실, 복도, 계단과 같은 내부 시설물은 물론 창문 틀과 현판 등 평소 고령의 어르신들이 평소에 관리하기 어려웠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청소하며, 어르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다.

유은자 광양읍 주민생활팀장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경로당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다”며 “경로당에서 행복을 충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행복한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광양읍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고자 지난해 ‘경로당 행복플러스’ 사업을 실시했으며, 20개소 1,863명의 어르신들에게 4개 단체에서 단체사진과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서비스, 건강체조 등의 재능 기부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양시, ‘빛그린 광양매실’ 경영활동 박차

농가에 매실과원 관리 장비와 정지·전정 인력 지원 확대 등

광양시는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과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명품 ‘빛그린 광양매실’의 경쟁력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과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매실이 과잉 생산됨에 따라 매년 매실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농가들도 대부분 고령화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매실재배를 포기하거나 과원을 방치하는 농가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매실과원 관리 장비와 전정작업 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간다.

우선, 올해 4억1천4백만 원을 투자해 영농작업 능력이 있는 82농가를 대상으로 동력전정가위를 공급한다. 또 고령농이나 여성농 등 매실과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양시 전정기술지원단 기술인력 1,200명을 투입해 1,200ha를 대상으로 정지·전정 작업을 추진한다.

시는 고품질 광양매실의 생산뿐만 아니라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억4천2천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실 출하 성수기전에 지상파 TV에 광양매실 특집 방송을 비롯한 케이블TV CF 광고, 서울과 광주 지하철역사 또는 전동차 내 매실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고속터미널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빛그린 광양매실’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 혁신도시, 두물머리공원 ‘봄 단장’

철쭉·핑크뮬리 등 6종 식재…시민 산책 및 휴식 공간 마련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과 사계절 꽃피고 향기 나는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나주시가 혁신도시 두물머리공원 언덕 꽃길 조성을 추진한다.

4일 나주시는 산림청 도시 숲(녹색쌈지공원) 분야 지특사업으로 선정된 ‘두물머리 나주언덕 조성사업’에 사업비 7억 원(국비, 시비 각각 50%)을 투입, 사계절 꽃길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물머리공원은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 북측 방면, 중흥S클래스1·2차 아파트 뒤편에 위치해있다.

특히 고대 마한~백제시대 무덤양식인 ‘고분’ 모양을 모티브로 약 10m 높이의 2개의 언덕이 조성돼있으며, 정상까지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시설물로 데크쉼터, 벤치, 가로등 등이 설치돼있다.

나주시는 두물머리공원 언덕을 중심으로 은목서(24주), 백철쭉 외 3종(39,450주), 핑크뮬리(175,350주) 등 계절별 다양한 상록·낙엽관목을 식재해, 사계절 명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